

생화학적 지표로서 본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영양상태

구보경*, 정준모**, 이해성.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근 생활양상이 현대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음주 인구 및 알코올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 알코올의 섭취는 영양소 대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 연구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의 생화학적 조사를 하여 만성 음주자들에 있어서 영양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을 모색하며 음주 인구 계층을 위한 영양 교육 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알코올성 간경변 남자 80명(ALC), 알코올성 지방간 남자 12명(AFL), 간질환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 57명(A), 바이러스성 간경변 남자 32명(VLC) 및 정상인 194명(NL) 이었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혈액을 수집하여 총 단백질, 알부민, 혈청지질, erythrocyte transketolase activity coefficient, erythrocyte glutathione reductase activity coefficient, 혈청 비타민 A, E, B₁₂, 엽산, 혈청 지질 과산화물의 농도 그리고 Hb, 혈청 아연 및 구리의 상태를 생화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LC군, AFL군, A군에 있어서 혈청 총 단백질이 정상 수준 이하인 대상자의 빈도는 각각 26.3%, 16.7%, 3.5% 였으며, ALC군에서는 41.3%의 대상자가 알부민 결핍을 나타내었다. 혈청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A군에 있어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알코올 섭취군의 HDL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정상인보다 낮았다. ALC군, AFL군, A군에 있어서 비타민 B₁의 영양상태가 결핍 수준인 대상자의 비율은 각각 46%, 66.7%, 57.9%에 달하였으며, 비타민 B₂의 영양 상태가 결핍된 경우는 각각 9.8%, 8.3%, 38.6%에 달하였다. 비타민 E의 영양상태가 결핍 수준인 대상자의 빈도는 각각 96.3%, 66.7%, 86%에 달하였으며, 혈청 지질 과산화물의 수준은 모든 알코올 섭취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ALC군, AFL군, A군에 있어서 체내 철 영양 상태의 지표가 되는 Hb치가 정상 수준 이하인 대상자의 비율은 각각 85%, 50%, 31.6%였고, 혈청 구리가 결핍된 대상자의 빈도는 각각 48.4%, 16.7%, 17.5%였으며, 혈청 아연이 결핍된 경우는 각각 83.8%, 41.7%, 66.7%였다. 생화학적 지표로서 본 알코올 중독자 및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의 영양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타민 B₁, E 그리고 아연의 영양상태가 불량하였다. 따라서 음주 인구 계층을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